

연방의회 입성한 환경미화원

아르헨티나 후후이주 태생인 알레한드로 빌카(45)는 빈곤층 출신이다. 그의 어머니는 가사도우미 등 세 가지 일을 하며 열심을 돈을 벌었지만 가정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빌카는 어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식당 웨이터, 미장공, 아이스크림 장사, 플라스틱 공장 직원, 보험판매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현직은 환경미화원이다. 그는 매일 밤 쓰레기차에 매달려 달리며 쓰레기를 수거한다. 11년째 하고 있는 일이다.



▲ 알레한드로 빌카. 사진=twitter(gaston_gordillo)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1년 그는 마침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1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노동자좌파전선은 유효표의 25.15%를 얻어 득표율 3위 정당으로 부상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선거제도에 따라 1위 후보로 공천된 그는 하원 입성을 확정했다.

빌카는 "어렵게 사는 사회 취약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사회의 변화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지만 환경미화원 출신 국회의원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의 역할에 벌써부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대 초반이던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였다. 이때부터 사회의 모순을 규탄하는 각종 시위에 참여하고 '노동자 좌파전선' 정당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1년 주지사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득표율 1.93%로 고배를 마셨다.

비행기 추락 사고서 홀로 생존한 소녀

5명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추락해 이중 4명이 숨졌으나 아버지의 희생으로 11세 소녀만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지난 13일 미시간주 샤를부 카운티 비버 섬의 웰크공항에서 통근용 경비행기가 이륙 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승객은 레이니(11)뿐이었다. 레이니의 아버지 마이크를 비롯해 또 다른 승객 3명 등은 이번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 사고 발생 직후 레이니의 남성 1명도 생존했지만 병원 이송 뒤 바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할 만큼 큰 사고였지만 레이니는 추락 당시 팔을 꼭 껴안은 아버지의 희생으로 큰 부상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레이니는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비행기가 추락할 때 아빠가 저를 끌어안아 보호해준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레이니는 사고 당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정



▲ 사진=비버 아일랜드 소방서

도로 위급한 순간이 있었으나 병원 이송 후 현재는 건강의 큰 이상은 없는 상태다. 레이니의 어머니 크리스티나 퍼듀는 14일 "우리는 남편, 아버지, 형제, 아들,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 그는 최선을 다해(팔을) 끌어안았고, 우리 딸을 단단히 붙잡아 보호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사고로 잃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전했다.

현재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사고 기체는 쌍발엔진 브리튼노먼 BN-2 항공기이며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95일 연속 매일 마라톤 완주한 여성



▲ 알리사 클락. 사진=kvia.com

미국의 한 여성이 95일 연속 95번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4일 CNN 등은 버몬트주 벨링턴 출신의 여성 알리사 클락(28)이 95일 동안 매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여성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강철 체력'을 가진 여성으로 기록된 클락의 무한도전은 팬데믹 덕이다. 지난해 3월 미 해군인 남편을 따라 이탈리아 나폴리에 머물던 클락은 당시 마라톤보다 더 힘든 철인경기를 준비하며 훈련 중이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경기가 취소되자 마라톤 레이스로 방향을 바꿨다. 특히 당시 이탈리아가 팬데믹으로 도시가 봉쇄되며 외출도 막히자 집에 있는 런닝머신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클락은 "당초 봉쇄가 2주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마라톤도 2주 연속 뛰겠다고 목표를 잡았다."면서 "그러나 봉쇄가 연장되면서 목표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매일 42km를 달리던 그는 25일이 지나서 관련된 기네스 기록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영국 여성이 세운 60일 연속 마라톤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목표를 연속 100일로 수정했다. 하지만 그는 96번째 마라톤에서 심한 가슴통증을 느끼며 도전을 멈췄다. 그와 남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클락은 "더 이상 세계기록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달리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네스 측은 목격자 증언들, 비디오, 런닝 데이터 등을 제출 받아 클락의 기록을 확인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